

10~11면 특집 I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12~13면 편의증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정 파문

새보람

SAEBORAM



KTX-산천(KTX-II) 시승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10호

2010년 3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0. 5. 2

<http://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I.W.M.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마음을 나누는데 장애도, 국경도 없습니다”

지장협, 16일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1천9백여만원 전달

김정록 회장, “칠레의 아픔, 장애인도 함께 나눠야”... 칠레 공사 “가장 가치 있는 성금” 찬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이 지난 16일 주한 칠레 대사관에서 열린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식’에서 성금 전달 후 데니스 빅스 칠레 공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16일(화)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식』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주한 칠레 대사관에서 실시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직접 칠레대사관을 찾아 대지진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칠레 국민을 위해 1천8백9십만1천9백원의 구호성금을 데니스 빅스 공사(대리 대사)에게 전달했다. 또한 칠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의연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장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협회, 232개 시·군·구 지회,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40여개 산하시설의 회원 및 임직원 등을 포함한 40만 회원들이 칠레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다”는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장애인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모금된 것

이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칠레의 재건을 바라는 한국 장애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칠레 국민에게 전해졌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에 데니스 빅스 공사는 “평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던 장애인이 얼굴도 모르는 타국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흔쾌히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놀라워하며 “오늘은 기존에 내가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선입견’이었다는 사

실을 깨닫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공사는 “이 성금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과 단체 등에서 받았던 그 어느 성금보다 가치가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협회의 성금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칠레의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공사의 배려에 김정록 중앙회장은 “칠레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월 2일 개막

달리기 위한 ‘본능’, 그 ‘아름다운 도전’이 5월 잠실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KBS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찬하는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The 19th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가 오는 5월 2일(일) 오전 8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적 명성과

최고의 기록을 가진 국내외 20여개국 600명 이상의 휠체어마라토너들이 42.195km의 풀코스 및 21.0975km의 하프코스 및 5km코스에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세계적인 경기의 유치를 통한 국내 장애인스포츠인재의 발굴과 그들의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정부 및 사회의 관심을 유발하여 침체된 국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개최돼왔다.

특히 2005년 14회 대회에는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국내 장애인스포츠계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장애인육상연맹(IPC Athletics)

공인’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의 수준을 한껏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대회 기록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게 됐고, 세계적인 선수들의 참가가 증가해 대회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내 휠체어마라톤 선수들의 국제무대 진출의 활성화의 통로를 마련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김정록 대회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나누는 마당이다”며 마라톤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2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지난 18회 대회 풀코스 출발장면)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도전’과 ‘극복’ 그리고 ‘감동’이 담긴 대회로 만들어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큰 울림’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해 5월 10일(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는 풀코스부문에 출전한 펀리 커트(Feamley Kurt,

28) 선수가 1시간29분49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며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풀코스부문에 출전한 한국의 홍석만(33) 선수는 펀리 커트와 결승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각축을 벌이며 종전 한국기록을 3분 37초 앞당긴 1시간29분50초의 기록으로 2위에 올라 대회 ‘준우승’과 ‘한국기록 경신’을 동시에 차지하며 한국휠체어마라톤의 역사를 다시 썼다.

“장애인콜택시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결해야”

김정록 중앙회장, ‘문화일보’ 인터뷰 통해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지난 달 9일(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과 관련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많고 택시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항상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중증장애인들이 길거리에 서, 집에서 무작정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많다. 10분 안에 일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장애인이 다시 콜택시를 타기 위해 1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히며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꼽았다.



지난 달 10일 발행된 문화일보의 김정록 중앙회장 인터뷰 기사

이어 “콜택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늘 주장하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현 시스템 내에서의 탄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콜택시 유형의 ‘다양화’와 운영체계의 ‘탄력성’ 확보를 통해 콜택시의 실질적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

안했다.

또한 김정록 중앙회장은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만 있는데 장애인 중 승합차 등 특장차를 필요로 하는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라며 “장애인들을 위해 차량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장차 한 대 값으로 여러 대의 소형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많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동권이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동은 장애인을 비롯한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며 꿈을 실현시켜 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꼭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높은 문턱 여전”

편의센터, SBS와 공동취재… 실태고발



지난 달 22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장애인의 은행 접근권 문제 (사진제공-SBS)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됐지만, 480만 장애인들에게 은행은 여전히 다가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남아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의 물리적인 문턱이 장애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중앙센터)는 지난 달 19일(금) SBS와 ‘은행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공동

으로 취재해 은행입구의 경사로 문제를 집중 고발했다.

이날 공동취재에 참여한 중앙센터 박성오 과장은 “은행 10곳 가운데 7곳은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각도가 권고치의 4배가 넘을만큼 가팔라 수동 휠체어론 올라가기도 어렵고 부상 위험도 크다”고 문제의 심각함을 전하며 “은행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관리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사 동정

• 임명	추송근	중앙장애인인권위 위원장
• 임명	박선하	장애인복지관협의회 회장
• 임용	이경자	초록어린이집 원장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10호 2010년 3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칼럼

“선심공약 남발을 경계해야 합니다”



쟁쟁한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잘살게 해주겠다, 잘 해 보겠다,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릴 것이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마치 자기 돈을 쓰는 것처럼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그 실천 성공여부는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다 음에 보자라는 행태를 보

“자립형사립고를 몇 개 만들겠다”,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등의 공약들을 정작 실현되더라도 문제입니다. 공약처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자립형사립고가 될 것이고, 세금은 전국의 도시를 신도시화 하는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돈 들이지 않고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국민의 세금에서 집행되는 공약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자신들을 위한 공약을 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후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지식과 의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못살던 시절 선거 때 입후보자들은 다리를 놔주고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을 선심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자립형 사립고 건립’ ‘신도시 추진’ ‘지하철 연장’ 등을 들먹이는 ‘공짜 선심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그 실천의 가능유무를 떠나서 대부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저 뿐일까요?

이는 후보자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이 입후보자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닌 국민세금을 써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인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법이 잘못되어 국민의 인권 및 삶에 지장이 있으니 바뀌 보겠다는 것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나, 들고 나온 공약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돈이 많이 드는 공짜 선심공약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공짜 선심공약으로 표를 얻은 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치 못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저예산에 이곳에 돌려 막다보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화폐를 찍어 내거나 국공채를 남발하게 되어 국가채무와 서민의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앞으로 내야 할 공약인지 더 내도 좋은

가득이나 경제위기로 어려운 지금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돈을 쓰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굶은일을 술선수범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 3. 10

중앙회장 김정록

‘제116차 시·도 협회장 회의’

휠체어마라톤대회 등 논의...인권위원장 임명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제116차 시·도 협회장 회의’에서 김정록 중앙회장 및 시·도 협회장들이 안건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제116차 시·도 협회장 회의’가 지난 11일(목)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매니페스토추진단 지역별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이 상정됐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협회장들은 지역별로 빠른 시일 내에 발대식 일정을 수립하여 지방선거를 ‘장애인 매니페스토’ 선거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신속하게 실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안건은 오는 5월 2일

(일) 개최될 예정인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관한 사항’으로, 시·도 협회장들은 마라톤대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입상 인원 확대, 다양한 이벤트 마련 등의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밖에 장애인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정(안)에 관한 사항, 2010년 권역별 실무자교육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임명장을 받은 추송근 중앙장애인인권위원장이 김정록 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송근 중앙장애인인권위원장의(이하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함께 열렸다.

김정록 중앙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추송근 위원장은 “성폭력을 비롯한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국한되었던 기존의 활동을 넘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실시



지난 12일 열린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직원들이 2010년 중점 사업인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센터)는 2010년 편의증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통추진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2일(금) 오후 2시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앙 및 16개 광역센터 직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센터 2009년 운영현황 및 2010년 예산현황’,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2010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실무를 담당

하면서 느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중앙센터 홍현근 팀장은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해 센터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편의시설,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 한다”

서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기본교육’ 실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규달, 이하 서울협회)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 사업’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기본교육’을 지난 10(수)일 총무 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5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시내 곳곳의 시설물과 보행 환경 등을 살피며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25개 구의 모든 모니터링 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난 10일 총무 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기본교육’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이규달 회장이 격려사를 낭독하고 있다.

자신이 소속된 구를 대표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노인, 임산부 나아가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 힘을 계속한다.

서울협회 이규달 회장은 “이번 살피미 사업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모니터링단은 이번 교육을 마치고 오는 3월 24일에 실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랑방 무료급식소’ 개소

인천협회 부평구지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회장 한동열)는 지난 8일(월) 부평구 관내에 ‘사랑방 무료급식소’를 개소했다.

이날 오픈한 ‘사랑방 무료급식소’는 기존에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왔던 무료급식

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평구지회 한동열 회장은 “무료급식소를 개소함에 따라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한 끼의 식사라도 더 대접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랑방 무료급식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정원대보름 행사에 참여한 동대문구지회의 장애인들이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즐거운 정원대보름 행사’ 실시

서울협회동대문지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지회장 장금영, 이하 지회)는 지난 2일(화) 동대문구 장애인 무료급식소 앞마당에서 ‘즐거운 정원대보름’ 행사를 실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동대문구 장애인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는 윷놀이, 투호, 링고리던

지기, 훌라후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특히 올 한해 장애인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오곡밥을 비롯한 각종 나물과 화덕으로 직접 구운 돼지바베큐 등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의 막바지에는 각종행사의 순위를 정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며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선사했다.

도민촉진단 요원 워크숍 및 위촉식



표창대 도민촉진단장이 지난 달 18일 양평대명콘도 무궁화홀에 열린 ‘도민촉진단요원 워크숍 및 위촉식’에서 요원들에게 도민촉진단 신분증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에서는(단장 표창대, 이하 도민촉진단) 지난 2월 18일(목) 양평대명콘도 무궁화홀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도민촉진단요원 워크숍 및 위촉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10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힘써줄 도민촉진단 요원과 관계자등 총 115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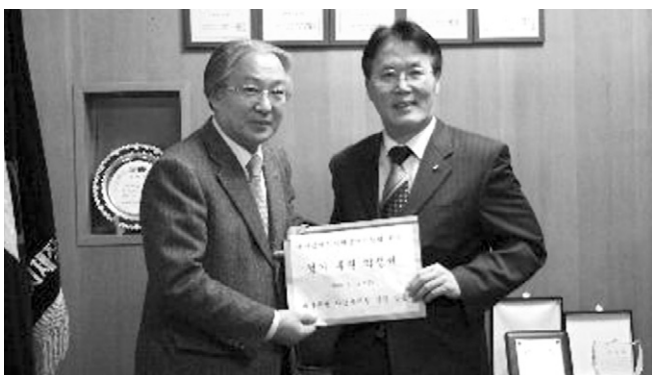
워크숍 및 위촉식의 1일차인 18일(목)에는 도민촉진단의 역할 및 진행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에 대한 발표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기본교육, 장애인 차별법에 기초한 장애인인권 살피기 등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도민촉진단의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표창대 도민촉진단장은 행사 2일차인 19일(금)에 열린 ‘도민촉진단요원 위촉식’에서 부단장으로 위촉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진형주 부장을 비롯한 요원들에게 직접 도민촉진단 신분증을 수여했다.

이로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는 핵심요원 30명, 전문요원 31명, 일반요원 62명으로 총 125명(단장, 부단장, 담당 포함)의 도민촉진단요원이 구성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도민촉진단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지난 3월 12일(금),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회)는 대구은행 아양로지점(지점장 전강열)과 ‘정기후원약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의 임직원은 지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대구협회로 후원하게 된다.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과천시지회 위탁 운영, 보장구 수리 및 사용방법 교육

경기협회 과천시지회

경기협회 과천시지회는 휠체어 등 보장구의 수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이하 센터)를 부림동 45번지 보호회관 옆 공터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센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고장 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장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보장구 이용자를 위해 여분의 휠체어를 비치, 대여하여 장애인이 외출이나 사회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위생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수시 교육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센터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관련 민원 접수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한 기술요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보장구 수리 관련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502-941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텐덤자전거 프로그램 ‘길따라 GO~GO씽’ 성황

용인시서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서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형규, 이하 용인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길따라 GO~GO씽’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17일(수)부터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텐덤자전거(Tandem, 2인용 자전거)를 타며 하이킹, 나들이 등을 통해 체력증진 및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적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텐덤자전거(2인용 자전거)의 앞좌석에는 비장애인이 앉아 파일럿의 역할을 하고, 뒷좌석에는 장애인이 탑승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할



용인시서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길따라 GO~GO씽’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텐덤자전거를 타고 있다.

수 있는 뜻 깊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인복지관의 김용주 사회복지팀장은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그 의미가 크며,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우며, 비장애인들의 참여확대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용인복지관은 텐덤자전거 프로그램 이외에도 수중치료의 다양한 기법을 접목하여 뇌병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아쿠아로빅’, 장애인전용의 파크골프장에서 기초부터 레슨을 통한 선수 과정까지 지도하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많은 장애인들의 호응 속에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westyongin.or.kr/>) 또는 ☎ 031)895-3240~3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벽산엔지니어링(주)과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실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차현미, 이하 북부복지관)은 지난달 27일(토) 벽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양수) 직원과 함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북부복지관 직원과 37명의 벽산엔지니어링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이날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5가정을 방문하여 도배와 장판 교체, 집안청소 등의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평소 신체적 불편함과 도와줄 이웃이 없어서 집안관리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노령의 지체 장애인 이 모씨(여 80)는 “3년째 병수발을 들고 있는 정신장애인 딸에게 정말 고마운 선물이 되었다”라며 이날 참여한 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벽산엔지니어링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활동모습.

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벽산엔지니어링(주)는 기업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북부복지관과 ‘사회공헌협약’을 맺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스트레스, 웃가락과 함께 날려 보내요”

문경복지관, 정월 대보름 맞아 ‘웃놀이 대회’ 실시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월 대보름맞이 웃놀이 한마당’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흥겹게 웃놀이를 즐기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유정주, 이하 문경복지관)은 지난 달 26일(금)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이용자,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에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정월 대보름맞이 웃놀이 한마당’을 지난 달 26일(금) 복지관 마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이용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직원, 김노동 시청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이래 문경시지체장애인협회장, 강승수 문경시척수장애인협회장 등 150여 명이 참가해 화합을 다지기 위한 웃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

성된 사물놀이 팀이 ‘장애인 재활자립과 복지관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풍물공연 후 진행된 웃놀이는 8개 팀으로 나누어 예선전, 패자부활전, 준결승전,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주최한 문경복지관은 참가자 모두에게 점心和 다과를 제공하고, 우승팀 및 참가자 모두에게 상품과 기념품을 전달하여 흥겹고 신명나는 웃놀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웃놀이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웃가락을 드높이 던지면서 그간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복지관직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트공예 교실’ 개강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공예를 통하여 예술적 감각을 개발하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아트공예 교실’

을 지난 4일(목) 개강했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아트공예 교실은 다양한 모양의 쿠키 만들기 뿐만 아니라 천연 비누 만들기, 양초공예 등의 다양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개강한 ‘아트공예 교실’에서 장애인들이 강사로 참여한 이미지화 아트공예 전문가와 함께 당근모양의 쿠키를 만들고 있다.

‘휠체어 안전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6월까지 운영 예정



장애인들이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 안전운전면허시험장’ 전동휠체어(스쿠터) 교육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세종, 이하 전남복지관)에서는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운전면허시험장’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현대자동차의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란 사회 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인 휠체어 안전운전면허시험장은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휠체어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휠체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휠체어 점검 및 수리, 야간 반사지 부착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간에 맞춘 1:1 개별 교육과 장애 특성 및 휠체어 운전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복지관 장세종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프로그램은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고나 교통 및 안전교육이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 332-4106(담당 : 최지연), 홈페이지(www.relife.or.kr)로 하면 된다.

경실련, 이명박 정부 ‘2년 보건복지 정책 결과’ 발표

“미달 혹은 낙제수준” 혹평… 22개 과제 중 19개 C등급 이하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보건복지가족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의 86%가 목표 및 사업성과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인 D등급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해 그 결과를 지난 달 24일(수)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복지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정책(핵심과제)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대선시기 내세운 선거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공약이행 평가 방식을 병행했다.

평가는 평가기준 별로 5점(1점이하 F, 1-2점이하 D, 2-3점이하 C, 3-4점이하 B, 4-5점 이하 A를 기준)으로 정책수행평가 각 항목별 점수와 공약이행평가 점수를 산출해 A~D 등급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의 평가결과,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핵심과제)의 86%가



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 혹은 낙제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2009년 11월 2일 열린 '장애연금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목표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B등급은 3개에 불과했다. 목표와 사업성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달인 C등급 17개, 목표 실현이 미미하고 낙제수준인 D등급 2개였다.

대선시기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지

키고 있는지를 평가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으며,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동안 평가받은 성적표가 그동안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 의료 분야

정책과제가 단순 구호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평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사회복지,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고 기본적인 복지 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축으로 삼고 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약이행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해외환자유치 등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의 경우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음에도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내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실화될 우려 또한 높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로비’ 의혹 일파만파

조직 확대 위해 후원금 모금…국회의원 3명에게 600만원 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김선규, 이하 공단)이 조직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걷는 등 조직적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지난 10일(수) “최근 공단이 국회의원 3명에게 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공단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활동을 벌인 것은 충북·전남·경북에 공단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11월 공단 기획실장이 전국 지사 기관장들에게 “이사장님과 이

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후원금밖에 없다”는 내용과 은행계좌번호가 적힌 이메일을 보내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단의 의도와는 달리 조직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위한 공단이 조직 확대에만 힘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공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4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법안, 3월 국회도 어렵다

한나라당 3월 임시국회 소집 응하지 않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장애연금법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오는 3월 ‘제288회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초장애연금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일(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모 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어서 방탄 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 등 상임위를 거쳐 수정된 일부 조항에 대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 따라 기초장애연금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동을 걸면서 끝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기초장애연금 7월 도입을 목표로 현재 하위법령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장애연금도입TF팀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어 법사위 안건으로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

다. 우리 부에서는 기재부에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나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7월 도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과 대국민 홍보, 지자체 교육 등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돼야”

김재윤 의원, 장애인 고용촉진 2개 법안 발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 비율의 3%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조사 결과,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이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8일(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해 제출토록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주당 김재윤 의원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확인·점검을 할 수 있고,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경영지침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한 정책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장애인 고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독립성 확보뿐 아니라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촉진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에서 3%에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다시 보건복지부로

국무회의서 직제개정안 의결...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오는 19일(금)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고 명칭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 9일(화)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명칭은 2년 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바뀌며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업무도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며 관련 업무 담당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

직 7급 상당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도 여성가족부로 소속을 옮긴다.

또한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보육·아동·노인 업무를 아우르는 1실 3관 11과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복지부로부터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1실 2관 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하게 되며 앞으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2010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 4월 9일까지



‘2009 전남 목포 뷰티플 챌린지’ 기능경기 대회

오는 6월 열리는 ‘2010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신청이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정규직종 20개, 시범직종 12개,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 2개 등 총 34개 직종에서 펼쳐진다.

참가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대회개최일 현재 15세이상(95년 6월 16일 이전 출생자)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단 워드프로세서 직종에는 장애인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이, 점역 교정·영어번역 직종에는 장애인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이, 그림·e-스포츠 직종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만 참가가 가능하다.

입상자 특전으로는 정규직종 금

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의 상금이, 시범·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e-스포츠제외)은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열리는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일부직종을 제외하고 입상자는 해당직종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4월 9일까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 또는 인터넷(www.worktogether.or.kr) 접속 후 마이페이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신청 및 조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자는 참가원서를 제외한 주민등록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를 해당 시도 지부에 우편접수해야 한다.

*문의: 전화 02-754-7755 전송 02-754-1717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출처-에이블뉴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인권위원회와 MOU 체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10일 김옥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과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오른쪽)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이하 진흥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와 3월 10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2009년 4월 공공기관을 필두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진정 사건 해결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이행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진정사건 협력,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2002년부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I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웹,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접근성 표준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웹 접근성 인증제도,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권위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보 접근권 관련 기술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2010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25개 선정

서울특별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을 위한 '2010년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공모한 80개 신청사업 중 25개 사업을 선정해 6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4일(목)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사회저명인사·

연예인·스포츠스타 등과 연계된 사업, 장애인 예술 활동 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비장애인 대상 이해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등 5개 분야의 총 2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의 회색리본달기 캠페인을 사회저명인사 및 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사업인 밀알복지재단의 '스타와 함께하는 회색리본달기 릴레이'와 언뜻 불가능할 것 같은 시각장애인의 사진 찍기를 통해 '본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각장애인 사진교실 및 전시회-2010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다.

이밖에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인형극

'버디 & 키디',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관광 가이드 양성과정-휠체어로 떠나는 서울 여행' 등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3월부터 진행되는 인식개선사업은 향후 각 사업수행단체의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국 블로그(<http://seoulwelfare.tistory.com/>) 등에서 주요 진행과정이 소개될 예정이다.

〈출처-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02)3707-8350〉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부산 기장군에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인 '새마을어린이공원'

부산, 기장군에 부산 첫 '무장애환경' 공원 조성

부산지역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조성될 예정인 '새마을어린이공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군수 최현돌)은 지난 3일(수) 기장읍 동부리 4천598㎡ 부지에 사업비 54억 2천만원을 들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새마을어린이공원'(사진) 조성 공사를 이달 중순께 착공해 오는 6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무장애환경(Barrier free)'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도 불린다.

기장군은 또한 공원 내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 경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일운동기념탑'과 '새마을 상징기념탑' 등을 만들어 역사적으로 항일운동과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됐던 기장군의 지역적 의미를 살리고, 시각 촉각 등 다섯가지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식물원인 '오감식물원'도 만든다.

또한 '갤러리벽'을 만들어 어린이나 초등학교 등이 누구나 신청하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경관용 열주기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확충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도입에 18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박광태, 이하 광주시)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29개 사업에 130억 원을 들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3곳에 64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1곳에 2억 3천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대에 18.5억 원, 장애인 콜택시 도입 10대에 14억 원 등이다.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 1회 시 관련부서와 시내버스조합, 도시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개선대책 실무반을 운영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유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증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최근 2년 동안 40여개 사업에 372억 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확충한 결과,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7대 도시 중 지난 2007년도 최하위에서 지난해에는 5위로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교통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평택, 사회안전망·장애인 복지사업 130억 투입

경기도 평택시(시장 송명호)가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30억 원을 들여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평택시는 지난 9일(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기능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복지의 실현, 장애인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에바다농아원 신축 등 5개 사업에 18억 원을 들여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5억 원을, 저소득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 급여 등 5개 사업에 46억 원을 연중 지원한다.

이어 장애인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등의 7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따뜻한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월동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연중 9억 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등 6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Pyeongtaek
Super

경기도, 보조기구 재사용 위한 MOU 체결

방치된 보조기구 수리·개조해 장애인·노인에게 무료대여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 보조기기 기업 등이 함께 ‘보조기구 재사용 사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었다.

지난 9(화) 경기도청에서는 ‘보조기구 재사용 협약(MOU)’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 회장,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회장단이 참여하여 보조기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보조기구 재사용사업으로 기증된 전동휠체어, 장애아동용 유모차, 리



지난 9일 열린 ‘보조기구 재사용 협약식(MOU)’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장애인단체장,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회장단 등이 협약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트 체어를 최영달(55세,지체1급)외 2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기기전달식도 진행되었다.

보조기구 재사용사업은 보조기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기증

된 보조기구를 세척·수리 및 개조 등 재사용과정을 통해 각 장애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기도는 보조기구 재사용 사업이라는 국

가 녹색성장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장애인·노인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에서

는 협약식 이후 더욱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 2010년에는 최소 500개 이상의 보조기구를 기증 및 지원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약 5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장애인·노인의 보다 폭넓은 자립생활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보조기구 재사용사업에 기증 및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보조기구 재사용 전화(☎1666-7363)로 신청하면 되며, 이 외에도 경기도재활공학센터의 보조공학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행시간 확대



울산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간과 차량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이용 증가에 따라 8일(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행시간 등이 확대된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올해 휠체어 리프트가 부착된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20대(증차 2)와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 37대(증차 13)를 운영키로 하고, 기존 예약을 통한 운영방식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부르미)을 하루 전부터 예약제로, 당일은 즉시콜로 병행하여 이용토록 하고,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예약이 없는 리프트 부착 차량과 일반택시를 활용한 콜택시 차량을 당일 즉시콜제로 운영, 차량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부르미(기존 오전7

시~오후8시)와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기존 오전9시~11시, 오후2시~오후5시) 모두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예약시간은 하루 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콜센터(052-292-8253)에서 접수하며, 예약시간대 즉시콜 이용자들의 전화연결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여 군 지역은 대중교통 좌석버스 요금(현금)의 6배인 ‘9,000원’, 시내지역은 3배인 ‘4,500원’을 상한요금으로 하여 초과금액 발생 시 상한요금만 지불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넷에절 등을 교육할 기관은 무안의 전남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7곳으로 확정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선정된 정보화교육기관 및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통해 장애인 2,190명, 노인 930명,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 2만3천300명 등 총 2만6,42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2만4천여명에 대한 관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행기관 선정

전라남도는 지난 8일(월)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역기능 예방을 위해 장애인, 노인에게 대한 정보화교육과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으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8곳을 확정했다.

도내 13만5천명의 장애인

에게 정보화교육을 수행할 기관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곳이 선정됐고, 노인 정보화교육을 수행할 기관은 목포상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곳이 선정됐다.

이밖에 학생들의 컴퓨터 과다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서비스, 네티켓, 인

충 청 남 도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보조인력 297명 배치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 이하 교육청)은 올해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297명을 배치하겠다고 지난 23(화)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발,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하게 되며, 이들은 장애 학

생의 용변 및 식사, 등하교를 지도하고 정규교사의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금은 1년 계약직으로 연봉 1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장식 충남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 보조인력들이 중증장애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최적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현장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양군, ‘행복한 보장구 센터’ 운영



충청남도 청양군(군수 김시환)이 지역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행복한 보장구 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다.

센터는 앞으로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모터, 발판, 타이어 등 부품을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리하고 수리

후에는 배달까지 책임지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체·수리해 주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이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해 협약 체결을 한 후 모든 수혜자가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 장애인은 현재 2831명으로 전체 인구의 8%이며 올해는 제16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가 청양에서 개최돼 장애인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고용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도”...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지난 2월 10일(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의 입법예고 후 언론매체는 “여성·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이 인상된다”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보도로만 일색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고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면을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그 위험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이 장애인고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씨피엘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중증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 하는 것, 둘째 ‘근속기간별’ 기준단가의 차등화 셋째, 사업주의 부담을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의 준수 지도 강화, 넷째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의 산업방법을 고시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 폐지

먼저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중증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살펴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6)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률별 장려금 지급액(2005)은 2~5% 미만 862건에 26,216명, 5~10% 미만 1,197건에 32,687명, 10~30% 미만 2,253건에 70,992명, 30% 이상 2,027건에 144,2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0~30%의 고용률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3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는 기업에게도 총 2,027건에 총 14만명을 지원한 것은 장애인을 다수로 고용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성격이 한편으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손실 보전과 더불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남성경증’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를 ‘차등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6) 자료에 의하면, 장려금 지급대상자 근속년수 현황(2005)은 총 27만명의 장려금수급 대상자 중에서 19만명 이상이 4년 이하의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무려 4년 이하의 근속률이 70% 수준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총 118,076명의 장려금수급 대상자 중에서 81,430명이 4년 이하의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총 156,256명의 장려금수급 대상자 중에서 115,466명이 4년 이하의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경증장애인의 4년 이하의 근속률이 69%, 중증장애인의 4년 이하의 근속률이 7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의 근속기간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도 장애인 근속년수가 무척이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고시한 경증장애인에 대해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의 직업보장 및 직업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천

만한 발상이다.

또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79곳의 장애인고용률이 평균 1.76%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정한 2%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려금 지원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증장애인 역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규모를 늘리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2008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 ‘사업주 부담을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사업주 부담을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는 정부의 말장난이며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업주 부담률을 현행 75/100에서 60/100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자로 월임금액의 60%가 지급단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단가로 되어, 현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단가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15%가 감액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약한 장애인작업장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취업중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다. ‘합리적 조정’이란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대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시,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아 장애인근로자의 급여를 낮추는 ‘역효과’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파문 일파만파

전면백지화 촉구

■ ‘산입방법’ 고시에 신설

마지막으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고시에 신설하는 사안을 살펴보자.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의 산입방법에 있어, 현 최저임금이상으로 경증남자, 중증남자, 경증여성, 중증여자장애인 순에서, 기준단가 차등화에 따라 입사일 순서로 변경할 경우, 지급단가가 높은 신입근로자는 기준인원으로 잡히고 장려금 지급단가가 낮은 장기근속 근로자들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높이는데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차라리 그 대안으로 ‘장기근속’한 장애인근로자를 기준 인원으로 먼저 산입하는 것이 장애인 신규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치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복지정책이 후퇴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연금’의 축소,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LPG 지원제도’ 등을 비롯한 현 정부의 ‘살벌한 복지정책’은 이 땅의 장애인들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정부가 장애인고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작금의 상황에 지장협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정권의 최대 공약을 ‘일자리 창출’로 삼았던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숙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현 정부가 장애인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밀려온다.

경기침체와 살인적인 실업의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을 노동부가 ‘여성·중증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의 사안만 부각시키고 ‘합리적 조절’이란 표현으로 포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며 이 땅의 480만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문제점에 앞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쓰여야 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고,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수록 공단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웃지 못 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장협은 지난 2월 19일(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에 대해 그 위험성을 설명하며 반대 의견을 노동부에 개진한 바 있다.

반대의견서 제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장협 중앙회 김재영 법인행정 팀장의 “앞에선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을 흘리고 뒤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도하는 장려금을 축소하려는 노동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짐처럼 지장협은 전국의 장애인을 대표해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480만 장애인의 ‘노동권리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기사제공

중앙회 김재영 법인행정팀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2. 개정주요내용

- 가. 30% 초과 시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중증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 상향조정

-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중증에 대해 25%(50%) 할증하던 기준단가를 33.3%(66.7%)로 상향조정하여 여성·중증에 대한 우대 강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현행	30%이하 인원 기준단가	300,000	375,000 (25%할증)	375,000 (25%할증)	450,000 (50%할증)
	30% 초과인원 기준단가 (33%할증)	400,000	500,000	500,000	600,000
개선안		300,000	400,000 (33.3%할증)	400,000 (33.3%할증)	500,000 (66.7%할증)

나.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 차등화

-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고, 중증장애인 은 단가 유지
－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2년까지 (1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2년초과 만 4년까지 (70%)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4년 초과 (50%)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사업주 부담을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합리적 조정 및 용어 정리

〈장려금 지급단가 예외사유에 따른 지급단가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장려금 지급단가 적용예외 사유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가 장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우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장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우	*월평균임금액→월임금액(최저임금산입금액)
장려금 지급단가	월평균임금액 75/100	지급단가 또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 중 중 적은 금액	

- 장려금 지급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

라.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고시에 신설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한국형 고속열차 KTX-

2004년 4월 3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도인 KTX가 운행을 시작한 날이다. 초기 KTX는 외국의 기술력에 의해 제작된 차량을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KTX를 운행한지 6년 만에 순수 국내기술로 고속철도를 개발하여 'KTX-산천'이라는 명품을 한국도 갖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KTX-산천의 본격영업을 20여일 앞둔 2010년 2월 11일 시운전을 통해 여러 고객대표 및 언론매체를 통해 KTX-산천의 위용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단체 고객대표로 우리협회가 선정되어 시승행사를 참여하게 되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안내하는 KTX-산천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설명 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KTX-산천'이라는 명칭은 한국형 KTX 제작 시 초기에 KTX-II라는 가칭을 사용하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름이다.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KTX-II)



휠체어사용자 탑승 경사로는 간이경사로로 기존 KTX와 다를 바 없었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1실만 제작됐고, 대변기 손잡이는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됐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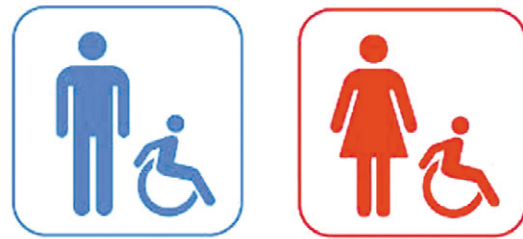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분리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이러한 용어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KTX 객차에서 남녀구분 장애인화장실을 원하는 것은 사치일까? 일반화장실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제작하였지만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1개만 제작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함)」에도 철도차량 내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라는 규정밖에 없어 남녀구분을 할 법적 강제력도 없는 실정이다.

기존 KTX에 비해 넓은 공간확보는 바람직하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사용은 여전히 불편하다. 대변기 손잡이의 경우 한쪽만 설치되어 교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쪽 손잡이 규정에 어긋난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변기 또한 하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정체불명의 표지



KS 공공안내 그림표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알리는 그림표지 또한 정체불명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그림안내 표지(픽토그램)를 국내표준(KS 공공안내 그림표지)이나 국제표준(ISA)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그려 사용하였다. 정부에서 제정한 공공안내 그림표지는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나 기업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내·외부 버튼의 높이도 다소 높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버튼 높이인 0.8m~0.9m의 범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세면대의 경우 높이는 80cm로 적정하지만 하부공간 중 깊이공간이 부족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시 발판 부분이 닿아 사용이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세면대에 접근하기 위한 공간도 협소하여 대부분의 전동휠체어의 경우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다

1. KTX-산천 일반사양

▶ 외부디자인

- 기존 KTX는 상어모양을 본떠 만들었지만, 이번 KTX-산천은 우리나라 토종물고기인 산천어를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 객차현황

- 특실 30석, 비즈니스석 16석, 우등석 317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호차에 휠체어사용 장애인석 3석과 전동휠체어용 2석이 설치되어 있다.

- 특실의 경우 1줄 3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등실의 경우 1줄 4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객실 내부

- 기존 KTX와는 달리 좌석이 회전이 가능하여 역방향 운행좌석이 없어서 승차감을 증대시켰다.

- 좌석간 거리가 넓어졌으며, 무선인터넷, DMB설비 등 편의시설이 개선되었다.

- 객실 출입문은 터치식 자동문으로 변경되었으며, 작동 시 소음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2. KTX-산천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사용자 탑승 경사로는 기존 KTX와 같은 간이 경사로로 되어 있다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열차에 내장된 형태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안전하지만 간이 경사로의 경우 내구성이 떨어진다.

산천(KTX-II) 시승기



측면 손잡이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었고 사용법 또한 장애인에게 쉽지 않다.

양쪽에 설치되어야 할 대변기 측면 손잡이의 경우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그 사용법 또한 어려워 근력이 약한 장애인에게는 활용이 쉽지 않다. 사용 설명서와 같이 한 손으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

한편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를 측면에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객차 간 연결통로는 0.45m로 장애인이 이동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실의 통로 폭은 기존 KTX에 비해 넓혀 놓은 반면 객차 간 연결통로는 더 좁아졌다. 객차 간 연결통로의 폭은

0.45m로 비장애인 성인 한 명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다. 휠체어의 최소 통과 유효폭으로 정하고 있는 0.8m에는 훨씬 못 미치는 0.45m로 휠체어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마저도 객차간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또 다른 장애인 차별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객차 시설안내도에 쓰이는 공공안내 그림표지 또한 국적불명의 것이 사용되었다.

또한 철도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고객이 예매를 할 경우 모든 장애인은 1호차에 있는 장애인석(휠체어 석은 별도 발매)으로 발권이 되고 안내가 된다.

그러나 목발사용 장애인 등의 보행장애인은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이동시 가장 먼 동선을 따라 장애인석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대합실에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와 최단거리 객차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면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석

위 사진은 휠체어사용 장애인석이다. 이 좌석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좌석으로 바닥판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후크를 설치하여 휠체어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1운행편당 휠체어사용 장애인석은 2석밖에 없다.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경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는 단체로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반좌석을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

위 사진에 보이는 3개의 좌석은 휠체어사용 장애인이지만 일반좌석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여행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다. 이 좌석은 접이식 수동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휠체어 보관소에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휠체어 보관소가 협소하여 휠체어사용 장애인석에 전동휠체어를 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감지식 자동문으로 설치된 객실 출입문

객실 출입문은 전자감지식 자동문으로 모든 사람의 이용에 불편함을 줄였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자감지센서 부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자감지센서 옆에 설치된 점자표지판을 확인하고 감지센서를 찾아서 작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자감지센서 부위에도 점자표지를 병기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객실모니터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안내자막을 제공하고 있었다

객실모니터는 기존 KTX에 비해 19인치로 업그레이드되어 시인성이 향상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도착역에 대한 안내를 자막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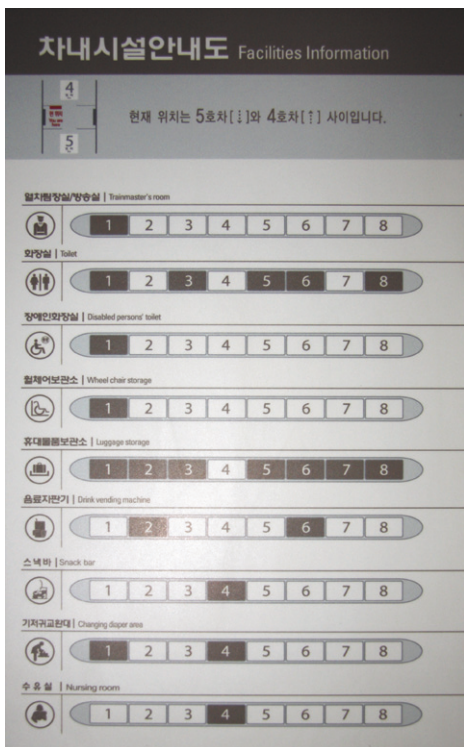
■마치며

KTX-산천을 시승하고 느낀 점은 이런 고속열차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감탄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아쉽다는 느낌이다. 모든 사회가 경제논리로 경쟁하며 산다지만 복지 분야마저도 그러한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장애인 복지는 도태되고 낙후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운임요금의 30~50%를 할인받는 승객에게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논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측은 이번 KTX-산천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고속열차를 제작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기사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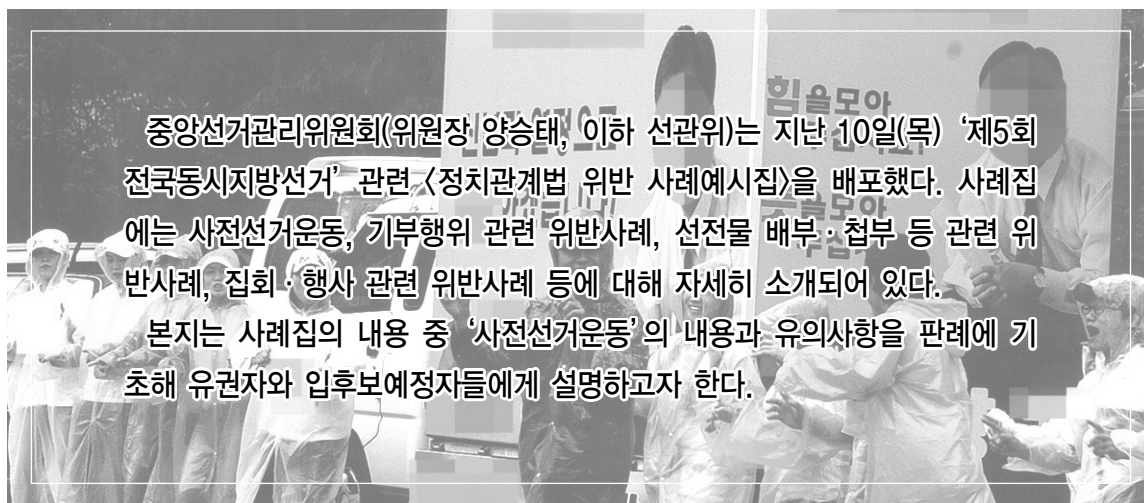
지체장애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



객차 시설 안내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위반(판결)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이하 선관위)는 지난 10일(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예시집>을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선전물 배부·접부 등 관련 위반사례, 집회·행사 관련 위반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지는 사례집의 내용 중 '사전선거운동'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판례에 기초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 사전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10. 5. 13~5. 14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 20~6. 1까지이다.
※ 예비후보자 등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결과와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된다.

라.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 활동,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마.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라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OO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 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련 사례예시

(2) 입후보 준비행위

• 불가능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정당의간부(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아님)가 선거운동기간전에 '당에서 OOO 후보를 추천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고, OOO 후보는 당의 인재이며, OOO 후보는 우리당의 경제전문가로서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선거법에 따라 전자우편·홍보물 등을 이용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선거구 민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배부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다

(3) 선거운동 준비행위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받는 행위와,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회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 일반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원수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할 자들에게 선거법해설 강좌를 실시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

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5) 통상적인 정당활동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이나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사례예시

•불가능

- ①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 ② 정당이 비당원인 일반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특정 선거의 공약으로 설명·선전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선전하기 위하여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 ③ 정당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강연 등을 통하여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당내경선을 홍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가능

- ① 정당이 소속당원에게 정당활동과 관련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문을 선거기간전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소속 당원에게전자우편을이용하여소속정당의정당·정책이나 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안내·홍보자료

를 송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④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호별방문 제외)하기 위한 활동은 가능하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제한·금지된다.

(6)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를 말한다.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관련 사례예시

•불가능

- ①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할 수 없다.
- ②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또는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 다수인이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게시할 수 없다.
- ③ 단체가 각종 회의를 개최하거나 강연을 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능

- ①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 ② 단체가 선거기간 전에 그 설립 및활동목적의범위 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강연회를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7)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의례적·사교적 행위

※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관련 사례예시

•불가능

입후보예정자가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가능

- ①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행위는 가능하다.
- ②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혼사에 통상의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무방하다.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운동 관련 대법원 판례

1.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례

- 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및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 ②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 ③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경우(대법원 2005. 9. 9. 선고)
- ④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

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 ⑤ 동일한 날짜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수개의 모임에 잇달아 참석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2004. 12. 23. 선고)

- ⑥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 ⑦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 ⑧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당원 및 일반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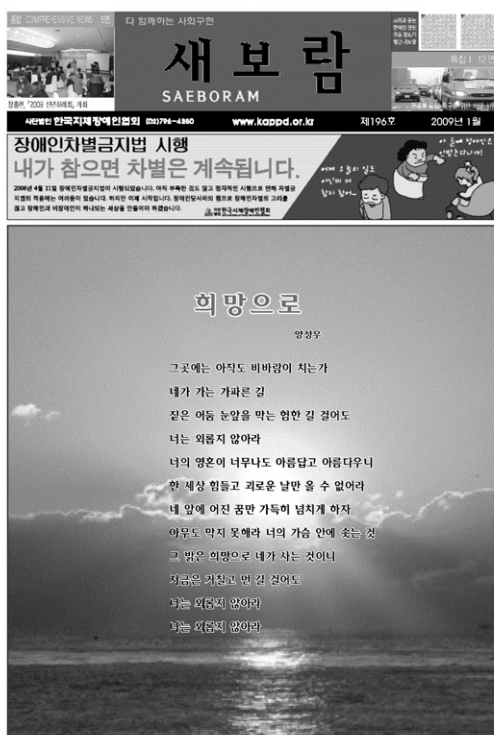
- ①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1996. 4. 26. 선고)
- ② 약을 사러 갔다가 그의 남편인 ○○○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1992. 10. 13. 선고)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달라지는 새보람

국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90년 3월 1일 탄생한 월간 새보람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창간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보람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신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중앙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02)2289-4381
hambaknun30@nate.com

■ 2010년 달라지는 새보람

① “독자에,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

–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새보람이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세상사는 이야기, 정책 비판 및 제안을 비롯해 그 어떤 주제도 새보람은 환영합니다. 원고는 매달 8일까지 이메일(hambaknun30@nate.com)이나 팩스(796-4281)로 보내면 되고, 기사로 채택되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② “현장속으로...전문적인 정보 전달”

– 장애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철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독자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③ 사람들의 이야기

– 새보람 209호(3월)부터 ‘people’ 코너를 신설해 장애인의 소소한 일상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④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새보람은 매달 15일 발행되는 월간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되기까지는 약 일주일(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좀 더 빨리 새보람을 보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메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링 서비스 신청 : 이메일(hambaknun30@nate.com)
팩스(796-4281)



사단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
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
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
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생계급여와 취업에 대해 여쭙볼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10대 여중생입니다. 저희부모님이 장애(1~2급)를 가지고 있는데 돈관리를 고모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오빠도 장애가 있어요. 올해 졸업(고등학교)을 했는데 진학이나 취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어린나이에 가족의 장애로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먼저 큰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부모님이 모두 장애가 있고 오빠도 그럴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계급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4인 가구 생계비는 136만원 정

도 되구요. 장애가 1~2급은 각각 13만원(서울거주자는 각각 3만원이 더 나옴 즉 1인 16만원), 3급~6급은 3만원의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을 더해보면 약 150여만원의 돈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이 그렇게 됩니다.

또한 오빠의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오빠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빠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몇급에 해당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직업교육은 보통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을 하고 싶은지, 진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진로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나 면담 등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 취업자리를 알선했고 있습니다. 전화 ☎02-2289-4321~2)를 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031-300-0921~7) 고용촉고용촉진부 ☎031)300-0921~7) 고용지원부로 전화하셔서 취업에 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제 장애급수가 맞는건가요?”

Q) 제 왼쪽 다리는 무릎부분부터 신체 발달이 멈춘 상태이고 신경부분도 없어 움직이지 않으며 발목도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여성분보다 종아리 두께도 무척 얇고 오른발과 길이 차이 5센티 정도 나며 그로 인하여 허리까지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를 피지 못하고 절뚝
절뚝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5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선생님의 장애상태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나 장애판정 지침에 의하면 무릎부분부터 발목, 다리길이 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장애등급은 5급~6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리길이가 5cm이상 차이가 날 경우
지체장애 6급 1호로 판정하며 발목관절

에 대한 장애 판정기준도 6급밖에 없기 때문에 5급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5급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귀하가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판정기준에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20살 때 장애등록을 했던 상태보다 더 악화되었다면 장애등급 재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조정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미화직	라이프산업	불광동	60대	여	아파트청소직	67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2	미화직	라이프산업	길음동	60대	여	아파트청소직	65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3	미화직	모아안전시스템	마포 공덕동	60대	여	아파트청소직	75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4	생산직	이엠씨	경기도 남양주시	무관	무관	사무직, 생산직, 미싱사	90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5	경비직	티지엠	수원	60대	남	아파트건설현장 경비직	100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6	경비직	인덕종합관리	도봉구	20대	여	경리사무보조원	100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7	서비스직	우보장	혜화동	무관	남	중국집 배달원	170만원	없음	2289-4321~2	손가람
8	생산직	태영주얼리	강동구	20대	무관	귀금속 용접	65만원	없음	2289-4321~2	손가람
9	생산직	CM	종로구	40대이하	무관	코사지 제작	80만원	없음	2289-4321~2	손가람
10	경비직	인덕종합관리	공릉동	60대	남	아파트경비직	115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11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상계동	66세미만	남	아파트경비직	97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12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정릉동	63세미만	남	아파트경비직	112만원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김연아의 감동, 우리가 이어 나간다”

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 출국, 역대 최강 전력... ‘종합 22위’ 목표

"불굴의 투지로 장애를 극복한 우리 선수들의 감동 드라마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지난 6일(토) 오후 인천국제공항 3층 로비에서 출영식(出迎式)을 갖고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다.

이날 출영식에는 선발대로 먼저 출국한 알파인 스키와 컬링 선수 등을 제외한 김우성 단장이 이끄는 25명의 선수단 본진(아이스슬레지하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선수)과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5개 전종목(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에 사상 최대 규모인 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동계올림픽 전 종목에 출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력 또한 역대 최강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한 동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해 중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지난 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영식을 마친 후 장도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대한장애인체육회)

합 22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우성 단장은 "이번 대회에는 단체 종목인 컬링과 아이스슬레지하키를 포함해 전 종목에 한국선수가 참가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전지훈련 등으로 선수들이 많은 땀방울을 흘렸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알파인스키 간판 한상민(하이원리조트)이 한국 출전 사상 첫 메달(은메달)을 땀으나 2006년 토리노 대회 때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한 알파인스키 한상민 선수.(사진제공-대한장애인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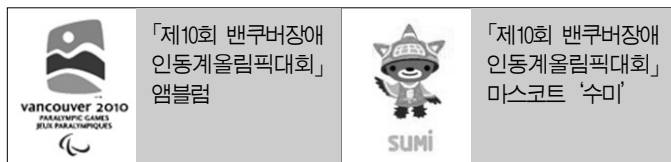
선수가 이번 밴쿠버 대회에선

8년 만의 메달 사냥에 도전하는 한상민과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 동시 출전하는 임학수(하이원리조트)에게 메달 확률을 기대하고 있다.

한상민은 지난 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월드컵 알파인스키대회 좌식스키에서 우승하며 가능성을 보였고 시각장애를 이겨낸 임학수도 지난해 스웨덴 월드컵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세계 정상권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바 있다.

한편 전 세계 45개국에서 1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패럴림픽은 13일(토) 오전 10시(한국시간) 밴쿠버 BC플레이스에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리며 5개 종목에서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22일(월)까지 열흘간의 열전을 벌일 예정이다.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대회개요

- 대 회 명 :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기 간 : 2010. 3. 12(금) ~ 3. 21(일) (10일간) (개 · 폐회식기준, 한국시간 13일~22일)
(일반동계올림픽대회 기간 : 2010. 2. 12 ~ 2. 28)
- 슬 로 건 : “불꽃은 불길이 되어(Spark becomes a flame)”
- 장 소 : 캐나다 밴쿠버, 휘슬러
- 종 목 : 5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이하키)
- 대회규모 : 45개국 1,350여명(선수, 임원 포함)
- 참가장애 : 척수 및 절단장애, 시각장애
- 주 최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주 관 : 밴쿠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일반/장애인통합조직위)

♣대회엠블럼

밴쿠버의 하늘과 태양, 그리고 바다와 대지를 형상화한 엠블럼은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스포츠에 대한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대자연을 하나로 묶는 제전임을 상징한다.

♣대회마스코트

대회마스코트 ‘수미’는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수호정령으로 밴쿠버와 함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휘슬러에 살고 있으며, 취미는 알파인스키, 해변의 산들 위로 날아다니는 것이다. 수미의 꿈은 세계에 그의 숲과 산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계장애인 올림픽 대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1976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대회가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데 비해 동계대회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티니(France Tignes, Albertville)에서 열린 제5회 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국가에서 동반 대회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998년 일본 나가노대회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개최되었으며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제8회 동계 장애인 올림픽대회는 제21회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통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장애인올림픽 대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요〉

회수	대 회 명	개최년도	종합순위
9	제9회 토리노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2006년	—
8	제8회 솔트레이크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2002년	21위
7	제7회 나가노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98년	—
6	제6회 릴레함메르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94년	—
5	제5회 티니/알베르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92년	한국처음참가
4	제4회 인스부르크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88년	—
3	제3회 인스부르크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84년	—
2	제2회 게일로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80년	—
1	제1회 오펜힐즈비크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76년	—

〈밴쿠버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비교〉

구분	장애인올림픽대회 (Paralympic Games)	올림픽대회 (Olympic Games)	비고
대회명칭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10th Vancouver Paralympic Games)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21th Vancouver Olympic Games)	
대회주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대회주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동일 단일조직) - VANOC		
개최횟수	제10회	제21회	
개회식	'10.3.12(금) 20:00~22:00(현지시간)	'10.2.12(금) 20:00~22:00(현지시간)	
대회기간	2010. 3. 12~3. 21(10일간)	2010. 2. 12 ~ 28일(17일간)	12일후
참가국수	45여개국	80여개국	
대회규모	선수 550명 임원 750여명 자원봉사 5,000여명	선수 2,700여명 임원 2,800여명 자원봉사 10,000여명	
참가규모	5개 종목 선수26명	15개종목 선수 50여명	
대회장소	캐나다-밴쿠버, 휘슬러	캐나다-밴쿠버, 휘슬러	
개최종목	〈5종목〉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이하키	〈15개종목〉 노르딕 복합경기, 봅슬레이, 스킨리톤, 아이스하키, 크로스 컨트리스키, 알파인스키,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스키,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스케이팅, 컬링, 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루지	
입상목표	종합22위(동1)	종합7위(금7개)→전대회 7위	

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에 장애인계 우려

“장애인계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결정 큰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주관처가 올해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변경된 것에 대해 장애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문화바우처 사업의 주관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였으나, 문광부는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의 주관처를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이관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16개 시·도에 각각 지역 주관처를 두고 있고, 한국문화복지협의회는 지난해까지 서울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주관해 왔다.

장애인계는 문광부가 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

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장애인이용률이 낮아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일개 사단법인이 국가사업을 집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관련 사업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단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바우처 사업의 장애인이용률을 살펴보면, 2006년 19%, 2007년 15%, 2007년 14%, 2009년 13%(동반인·인솔자 제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광부는 지난 2006년, 2008년, 2009년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에서 문화바우처

지원의 약 40%를 문화예술향유의 특수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40%의 비율은 전체 지원대상인원대 등록장애인 인원 비율을 고려한 수치이다.

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법에 귀속되는 법정단체로서 법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었지만, 문화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에 있어 법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 문광부 문화예술국에 질의서를 보내 문광부측에 문화바우처사업 주관처 이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질의서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장애관련 전문성이 없는 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이관되는 것은 장애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사전협의나 공고를 통한 보편적 당위성을 전제하지 못한 이관”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부터 장애인이 용률이 평균 12%로 감소한 것은 문화바우처사업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문광부의 내부결정으로만 문화바우처사업이 일방적으로 이관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시, 남자 휠체어농구단 창단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국내 장애인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남자 휠체어농구단을 창단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일 (목) 오후 3시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단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박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날 창단된 ‘남자 휠체어농구단’의 선수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양궁, 육상, 빙상 등 18개 종목 21개 팀을 구성·운영하며, 각종 대회에 참가해 상위 입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장애인 종목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체육활동 인구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창단을 추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종목인 휠체어농구팀을 창단하게 됐다.

한편 휠체어농구팀의 창단 멤버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선수단 휠체어농구단 감독으로 장애인 전국체전 등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한사현 감독을 비롯해 현 국가대표



지난 4일 국내 장애인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창단된 ‘남자 휠체어농구단’의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 김철수, 김동현, 최희용, 이동렬 선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광진구 구의동 소재)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되며, 올해 전국장애인체전 등 10여 차례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현재 휠체어농구는 국내 28개 팀이 활동 중이며, 매년 11개 대회가 개최되는 등 장애인 체육 가운데 비교적 저변이 넓은 종목이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2010년 광주아시아계임을 대비해 전지훈련 및 장비를 지원하고 각 대회에서 입상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체계로 팀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남장애인복지관, ‘헛소리 드로잉 워크숍’ 개최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프로젝트 사업 ‘헛소리 드로잉 워크숍’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무료 오픈강좌를 받고 있다.

“그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면 잘 그리는 것일까? 나를 진솔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강남장애인복지관(관장 박정근, 이하 강남장북)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프로젝트 사업인 ‘헛소리 드로잉 워크숍’을 지난 3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일상예술창작센터와 강남장북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창작욕구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가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창작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으로 나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무료 오픈강좌로 시작한 워크숍은 오는 4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강남장북은 워크숍 종료 후 드로잉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복지팀 정원일 ☎02-445-8006〉

지체 1급의 장애를 딛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김동근씨

함께 4년 기숙사생활 한 어머니 덕에 꿈 이뤄... “신뢰받는 교사 될 터”

희귀난치병 ‘근이양증’에 걸린 소년

14살의 한 소년은 어느 날부터 걷기가 힘들어졌다. 온 몸 근육의 힘이 약화되고 일상의 소소한 일조차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게 됐다. 희귀난치병인 ‘근이양증’을 앓게 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김동근(24, 남). 그는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교단에 오르고 있다.

장애를 딛고, 교원임용시험 합격

“지금까지 받아왔던 관심과 사랑을 드디어 돌려줄 수 있게 돼 너무 기뻐요.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선생님이 될게요.”

지체장애 1급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당당하게 교사(敎師)의 길에 오른 대구대 특수교육과 4학년 김동근(24)씨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4년 내내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대학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부해야 했던 그이기에, 교사로서의 첫 출발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열 네살 때 근육의 근력이 약화돼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근이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만났다. 그때부터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나를 일으켜준 사람... 어머니”

그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마저 불가능했던 그의 곁을 항상 지켜온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 권옥숙(50)씨는 그가 대구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하는 날부터 울산에 있는 집을 떠나 4년 동안 아

들과 함께 대학생살을 해왔다. 다행히 대학 측의 배려로 기숙사 생활도 함께 하고, 수업도 함께 들어갔고 때로는 학습·생활 도우미 지원도 받았다.

이 같은 도움으로 그는 임용시험 준비뿐 아니라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특수교육과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했고, 음악감상과 악기 연주 등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었다. 김동근 씨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이다”고 말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어머니 권옥숙(50)씨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집(울산)에서 올라와 4년 동안 힘겨운 캠퍼스 생활을 이겨내고 당당히 꿈을 이뤄낸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위의 도움도 큰 힘이 되어

지난 달 26일(금) 김동근 씨는 울산 남구청을 찾았다. 이유는 5년 전 남구청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06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지만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 때문에 그외 대학진학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김두겸 남구청장(당시 남구의회의장)은 주변에 김 씨의 어려움을 호소, 김 씨는 한 단계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동근 씨는 “구청장님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어머니 권옥숙(50) 씨는 “다른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힘들었다”며 “그때 구청장님의 도움으로 입학도 시키고 등록금도 낼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이에 김두겸 구청장은 “불편한 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동근이가 대견하다”며 “지금까지



희귀난치병 ‘근이양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김동근 씨

받았던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선생님이 되어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돼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힘겹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교사가 될 터”

한편 김 씨는 지난 2월 23일자로 울산혜인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임용되어 고등부 담임을 맡게 됐다. 국어과목을 가르치게 될 김동근 씨는 교사라는 꿈을 꽤 오래 전부터 그려왔다고 한다.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혼신을 다해 진학지도하는 선생님을 보며 교원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회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다가가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그것은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돼주는 교사가 되는 것만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어머니와 모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임용시험에서 합격한 지체장애인 김동근씨, 모친 권옥숙씨가 지난달 26일 5년 전 받은 장학금의 답례로 남구청을 방문, 김두겸 남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근 씨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 혜인학교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수기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화)과 14일(수)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장애인들의 '애환'과 장애 극복을 통한 '삶의 의욕'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아내에게 행복을 선물 받다” - 마지막 회

하 용복 (경기 수원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물리치료도 받으러 다니며 아내의 몸은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아내는 부업을 시작했고,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곤 하지만 당시 아내는 혼자 힘으로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정성을 아는 지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장성한 아이들은 결혼 후 직장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효심 가득한 3남매는 주말마다 일마치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내려가곤 합니다.

어느 날 큰 아들이 “부모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주 보고 같은 곳에 있으면 저희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 질 것 같아요. 같이 수원으로 가요” 라고 말해 오랜 고민 끝에 수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오고 얼마 지나 아는 분의 소개로 저의 아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저희 부



지난 2009년 10월 13일(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하용복 씨 부부가 즐겁게 답소를 나누고 있다.

부에게 협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신 덕분에 봉사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안구구역장을 맡으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저의 아내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해요”

라며 활짝 웃곤 합니다.

지금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도 아니며 행복해 보이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저희 3남매와 제 아내가 있기에 너무나 행복하며 웃음을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그 힘든 시절 나에게 시집와 나의 모난 성격을 가다듬어 가며 우리 3남

매를 사랑으로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장애와 한참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의 병원생활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 내색 한번 없이 언제나 저희의 곁을 지켜 주며 반듯하게 자라 결혼을 하고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장애를 얻은 지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장애란 것이 창피했고 부끄러웠으며 인생에 행복이란 게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원망했기에 너무나도 빠뜨려진 성격이었지만 아내를 만나 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제 성격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전 아내에게 해 준 것이 없어 항상 너무나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해 준 것은 없지만 더 많이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행복을 들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받은 행복이란 선물을 이젠 다른 장애인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자투고



전소희 (용인시서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 복지지원팀)



“행복하게 사는 삶의 자세 일곱 가지”

첫째, 웃으며 즐겁게 살자.
둘째, 소박하게 살자.
셋째, 나누며 살자.
넷째, 감사할 줄 알자.
다섯째, 희망을 갖자.
여섯째, 재미있게 일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자.
일곱째, 보람 있게 살자.

- 김홍신,
〈인생사용설명서〉 중에서...

‘웃으며 즐겁게 사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소박하게 사는 것’ 사람은 언제나 욕심이 많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누며 사는 것’ 작은 기쁨이 있다면 주변사람들과 나누어 두 배가 되고 세배가 되어 서로 함께 기쁨을 수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일하고 세상이 보탬이 되는 것’ 맡은 일이 힘들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재미있게 일하고 제가 있는 이곳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용인시서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에 입사하게 되면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친절하게 임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웃음으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앞으로 많이 느끼고 배워가며 서툰 지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 작은 배려에서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복지관의 일원이 되어 ‘보람있는’ 복지관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용인시서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에 입사한 전소희 사회복지사가 향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믿음직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0년 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은경, 김정태, 김진호, 김행성,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솔빈, 선병욱, 성화전기공업, 손영주, 양순연, 유재복, 윤순애, 윤시현, 이운상, 이은정, 임채종, 전원철, 정상호, 조점제, 조태동,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진흥기업, 최옥란, 최제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 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1		2		★3		4
	5				6	
7						★9
10					11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지난 1월 12일 진도 7.0 지진이 강타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은 나라.

[가로열쇠]

-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선수.
- 지난 2월 방영후 호평을 받은 MBC 다큐 ‘○○○의 눈물’. 인류 최초의 자연 보고 서식지인 브라질 ○○○ 지역을 탐사한 자연 다큐멘터리.
- 나무, 수지, 금속, 돌 따위로 이루어진 판에 그림을 새기고 색을 칠한 뒤에, 종이나 천을 대고 찍어서 만든 그림.
- 쿠바의 리듬에 로큰롤, 솔, 재즈 따위를 혼합한 활기에 넘치는 라틴 음악.
- 자라과에 속하는 민물 거북이. 등딱지의 길이는 15~17cm이고, 등갑과 배갑은 인대조각으로 접착되어 있다.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4자성어.
- 유럽선 경주 따위에 쓰는, 속도가 빠른 서양식의 작은 배.

[세로열쇠]

- 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천상(天上)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데 노하여, 인간을 벌하기 위하여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흙으로 만든 불행을 담은 상자.
- 살구나무, 개살구나무 따위의 열매. 살은 식용하고 씨의 알맹이는 한약재로 쓴다.
- 낙랑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북.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好童)이 낙랑 태수의 딸에게 외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리는 자명고를 짓게 하여 낙랑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중국 남서부에 있는 고원 지대. 히말라야 산맥과 쿤룬 산맥에 둘러싸여 있으며 황허(黃河) 강, 양쯔 강(揚子江), 인더스 강 따위의 발원지이다.

지난호 정답

	★1	페				2	암	자
	★3	스	편	4	지		모	
5	위	트		6	하	모	니	
	스				철		아	
7	키	8	위					
		퀘		9	명	왕	10	성
11	사	양	지	심		★12	토	익

당첨자

2월호 정답
페스토

임 경주 인천 웅진군 대청면 (날말맞추기)
 박 연웅 울산 북구 중산동 (틀린그림찾기)
 최 송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 (말풍선놀이)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분품, 담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Challenge and Overcoming Inspiration of Seoul to the World

2010년 5월 2일(일) 오전 8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주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AD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FD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관

S.I.W.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FAMILIES, WOMEN AND ELDERS AFFAIRS

서울특별시

Seoul

국민체육진흥공단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OSA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BS

협찬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301, 3F E_room Center, 22 Yeosadangro, Yongdeungpo-gu, Seoul, 150-917, Korea

E-mail. seouliwm@hotmail.com / Tel. +82-2-2289-4332 / Direct. +82-2-2289-4330 / Fax : +82-2-796-4281